

우리나라袴에 관한 小考

A Study on Korean Trousers

目 次
I. 序 論
II. 研究調査 및 考察
第一章 上古時代の 袴
1. 三國時代の 袴
2. 統一新羅時代の 袴
第二章 高麗時代の 袴
第三章 李朝時代の 袴
第四章 開花期以後의 袴
III. 結 論

서울대학교 家政大學
College of Home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講 師 白 英 子
Lecturer Back, Young Ja

I. 序 論

服飾은 氣候에 따라서 2가지로 大別할 수 있는데, 寒冷한 地方에서 發達한 窄袖窮袴의 形態를 北方式이라하고 溫熱帶地方에서 發達한 裳 形態의 衣服을 南方式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古有의 衣服形態는 東北 亞細亞 地域의 遊牧民에게 共通된 形態인 北方式(北方胡服系統)으로서 좁은 소매와 홀태바지인 것이다.

그리고 高句麗時代의 古墳壁畫를 보면 女子도 袴만을 着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北方式인 胡服系統임을 더욱 確固히 해주는 한편 우리의 基本服制는 上衣下裳式의 中國과는 다른 男女着袴의 形態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外來文化의 傳來로 말미암아 外國의 服飾에 많은 影響을 받게 되어 貴人階級の 服飾과 庶人階級 服飾의 差異를 크게 하였으며 貴人階級에서는 外來文化의 文化的·政治的 影響性을 나타내는 反面에, 庶人階級の 服飾은 民族의 本質의 特徵을 나타내어 固有文化의 傳統을 黙守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服飾의 變遷 가운데서도 上古時代 以來의 바지는 現在까지도 이어내려 온 것을 알 수 있는데 中國의 影響을 수 없이 받아들인 上流階級에서조차도 中國式冠服 밑에는 바지 저고리를 입었음을 보아 우리 服飾의 끈질긴 裏面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近來에 와서는 韓服에 관한 關心이 멀어지고 社會的活動이 多樣해 짐에 따라 洋服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

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아쉬운 것이 우리 傳統이니 本論文에서는 固有服의 基本形態라고 할 수 있는 袴에 對한 起源과 變遷에 關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袴에 關한 實物蒐集이 不可能하여 主로 文獻에 나타난 바를 바탕으로 考察한 點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II. 研究調查 및 考察

第一章 上古時代의 袴

1. 三國時代의 袴

三國時代의 基本服制는 男女가 모두 袴를 입는 胡服의 特色을 갖고 있는데 이는 窄袖形의 저고리와 통이 좁은 窮袴를 말하는 것으로 漢六朝時代의 胡人像(圖 1)에서도 그와같은 것을 볼 수 있어 우리 衣服형태와 흡사함을 알 수 있다.



〈圖 1〉「아스타나」發見唐代西城木彫男女像(胡人像)

이 當時의 袴의 형태는 高句麗의 古墳壁畫에 나타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바 이 壁畫도 平壤遷都 以前 滿洲所在의 角抵塚, 四神塚과 遷都以後의 鎧馬塚, 龜神塚, 雙楹塚으로 나눌 수 있다. 前著에 나타난 服飾은 固有服이라 할 수 있는 北方系의 胡服形態가 主이고 後者는 中國의 影響을 받아 漢服形態를 많이 닮았다 하겠다.

즉 舞踊塚에 나타난 人物圖中(圖 2)의 男子는 窮袴형태를 입었고 雙楹塚에 나타난 人物(圖 3)은 大口袴를 입고 있어 차이를 나타낼 뿐 아니라 女子의 袴着用法도 舞踊塚(圖 4)의 女人圖는 袴만을 입고있는 固有形態인데 반하여 雙楹塚 女人圖(圖 6)는 땅에 끌리는 치마를 입는

것으로 보아 中國服飾의 裳을 받아 들인 것이 짐작된다.

또한(圖 5)의 女人은 袴 위에 裳을 입은 모습이 確연한데 이로써 婦人着袴의 基本服制위에 中國을 따라 着裳을 한 것임을 確실히 해 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外國의 影響은 主로 上流계급에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데(圖 7)의



〈圖 2〉 舞踊塚



〈圖 3〉 雙楹塚



〈圖 4〉 舞蹈塚



〈圖 5〉 舞蹈塚



〈圖 6〉 雙檀塚

下人級 人物은 窮袴를 着用했고 上流級 人物은 大口袴를 着用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袴의 형태로서는 이와 같은 窮袴와 大口袴外에 裵이라는 것이 記錄에도 나타나는데, (南史東夷百濟條 등) 이것은 바지길이가 짧은 勞動服으로 지금의 잠뱅이는 裵이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또 慶州 斷石山 石壁에 陰刻되어 있는 共養人物圖는 廣袴를 着用하고 있어 高句麗 貴人級衣服과 共通되는 것으로 보아 高句麗, 新羅, 아울러 百濟의 袴制가 서로 비슷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¹⁾.



〈圖 7〉 慶州斷石山 人物圖

그리고 袴에 쓰인 衣次와 色은 확실하지 않으나 壁畫에 나타난 것에 의하면 주로 저고리와 같은 土黃色, 黑色, 白色등이 있으며 무늬가 있는 것도 식별 할 수 있으므로²⁾ 衣次 역시 그 당시에 使用되던 絹, 布, 毛로 된것을 입었을 것 같다.

2. 統一新羅時代의 袴

新羅統一期에는 親唐政策을 썼을 뿐 아니라 唐의 章服을 請하여 입었고 統一을 완수한 文武王 4년에는 婦女들까지도 中國服飾을 따르도록 하였는데 비록 宮中과 특수 有宮者층에 한했다 할지라도 우리 服飾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하겠다.

당시의 服飾제도는 자세한 것을 알수는 없으나 第42代 眞德王 服飾禁制가 三國史記에 남아있어³⁾ 唯一한 新羅服飾史料로서 唐制를 襲用한 新羅服飾의 擘모를 보여준다.



〈圖 8〉 慶州 斷石山 人物圖

禁制中·袴에 관한 것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男) 眞骨大等	禁 麗繡錦羅
六頭品	用 純絹綿紬布
五頭品	用 綿紬布
四頭品	用 布
平人	用 布
女) 眞骨女	禁 麗繡羅
六頭品女	禁 麗繡錦羅 純羅 金泥
五頭品女	禁 麗繡錦羅 純羅 金泥 野草羅
四頭品女	用 小父綾純絹已下
平人女	用 純 已下

여기에서는 袴는 男女 共通으로 입은 것을 알 수 있는바 男子의 袴는 下體被服의 基本服飾으로 보고 女子의 경우는 袴에서 基本服飾의 裳으로 옮겨지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러나 아직 女子의 衣次에 平人女가 「純」이하로 되어 있고 眞骨女는 金泥같은 것을 올린 것을 보면 평상복으로서 이 바지만을 입을 수 있었던 것 같다. 4)

第2章 高麗時代의 袴

高麗의 歷史的背景은 매우 多難하여 初期에는 唐의 뒤를 이어 宋의 影響을 받았고 때를 같이하여 地方에서 일어난 契丹族, 女眞族의 勢力이 强大해짐에 따라 그들의 侵攻이 또한 끊임없이 있었다. 뒤이어 地方 蒙古族이 일어나서 高宗朝以後 100餘年동안 蒙古 卽 元에 服屬하게 되고 駙馬國으로 化함에 따라 政治的變化가 無常했다.

그러므로 高麗時代의 服飾은 우리 古來의 服飾위에 唐制·宋制中國化된 契丹制, 元制 등의 各服飾의 交錯해서 影響을 주었다고 하겠다. 이 當時의 服飾을 研究하는데 資料가 되는 것은 高麗服飾의 變遷을 簡明하게 叙述한 高麗史與服志와 仁宗6年(1128)에 宗使의 隨行員으로 왔던 徐競이 滯京 1個月間의 見聞을 記錄한 「宣和奉使高麗圖經」이 있는데 이에 依해 官服에서부터 庶民服에 이르기까지 當時의 服飾制度를 알 수 있다.

이 高麗圖經에 실린 袴만을 따로 추려보면 仔細한 制度는 明記되어 있지 않으나 袴는 元來 地方胡服系統의 服裝으로서 三國時代의 大口袴, 窮袴로 부터 新羅에 이어 高麗에 이르기까지 別로 變함이 없을 것이다.

圖經에서 袴에 對하여 言及하고 있는 것은

卷第十一 「龍虎中猛軍」

龍虎中猛軍, 服靑服窄衣, 白紵窮袴……………

卷第十二「領軍郎將騎兵」

領軍郎將騎兵. 服飾其等不一. 凡紫羅戰袍, 白袴自履, 文羅爲中, 飾以珠貝者, 皆隨人也. 至服青絲綵絲大花戰袍, 其袴或以紫, 或以黃, 或以白. 髡髮, 而巾制不衰, 切部於頂. 聞是契丹降卒……

卷第十九「舟人」

……短褐被體. 下無袴襦……

卷第二十「貴婦」

……製文綾寬袴. 衷以生絹……⁵⁾

으로서 이를 다시 간추려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即 龍虎中猛軍은 靑布窄衣에 白紵窮袴를 입었고 領軍郎將騎兵은 白袴, 그리고 契丹降卒은 紫袴, 黃袴, 白袴를 입었다. 또한 舟人은 下無袴襦였고 女子의 服色으로는 貴婦人이 生絹을 안에 바친 文綾寬袴가 있다.

그밖에 麗史 兵志 文宗 18年 8月條에 나오는 것으로 西北而 戍邊軍士에 내린 것으로 綿袍, 綿袴를 볼 수 있는 바 이는 안에 繭綿를 둔 소위 핫바지를 얘기한다.

이로써 高麗時代의 袴는 三國時代부터 내려온 窮袴와 寬袴가 있었으며 貴婦人은 안에 生絹을 받히어 걸은 綾絹으로 된 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上古의 遺習대로 바지만을 입는 習慣이 아직 남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舟人의 下無袴襦는 위에 短褐을 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三國時代의 긴 저고리가 이때까지 傳承되고 있음을 暗示해 주는 듯하고 이 短褐에 띠가 있어 袴를 입지 않기도 아래가 들어나지 않는 下民들의 服裝이 아닌가한다.

또 다른 見解로서는 李奎報 詩에 「頭岸麗盼幘 身遮犢鼻褌」⁶⁾이라 있어 桂陽守로가 있던 李奎報도 退去하여서는 쇠코잠뱅이(犢鼻褌)를 입고 있으니 高麗時代에 잠뱅이가 一般化한 것으로 보이고⁷⁾ 따라서 舟人도 袴를 입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쇠코잠뱅이를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高麗時代의 袴에 使用된 衣次의 色은 다음과 같다. 即 바지의 衣次로는 仔細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위의 記錄으로 보아 軍人들의 紵布, 綿布, 貴婦人들의 綾絹, 生絹을 들 수 있다. 또 圖經에 王도 平居에는 白巾에 白紵袍를 입어 一般平民과 다를 바 없다고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보아 王이하 平民에 이르기까지 바지의 衣次로는 白紵를 使用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一般平民服色이 主로 白衣였고 또 白袴의 記錄이 몇있는 것으로 보아 바지의 色은 主로 白色이었고 外國人인 契丹降卒만 紫・黃・皂色等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第三章 李朝時代의 袴

李朝가 高麗의 뒤를 이어 政權을 잡은 뒤의 服飾은 事大主義가 徹底해짐에 따라 明나라 制度를 追從했다. 特히 男子의 冠服制度가 많이 變革되었고 女子의 服飾은 上層階級만이 中國衣服을 襲用하면서도 가장 傳統的인 衣服을 많이 입었다고 하겠다.

女服의 基本的인 構造는 저고리·치미로서 傳統을 지켜 내려온 바, 치마는 길고 폭 넓은 것을 여러겹 겹쳐 입어 重厚한 美를 나타냈는데 李朝時代의 女子의 袴는 完全히 치마밑에 입는 속옷으로 變貌되었고 많이 껴입어 치마를 퍼지게 하는 구실도 하게 된 것이다.

太宗實錄에 우리나라의 衣冠文物이 다 華制를 따르고 있으나 婚禮만 舊習을 따르고 있다 하고 黃喜는 婚禮보다도 女服을 華制로 고치자고 하였으나, 이에 對하여 太宗은 風俗을 바로 잡은 연후에 女服을 고치자고 不允하였다. 이로 보아서도 一般女性의 服飾은 傳統的인 國俗이 變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⁹⁾.

9代 成宗實錄에 보면⁹⁾

衣	紅綿布襦衣 白袖袴兒
袴	白綿布襦裏衣(속곳)
裳	耕耜割襦裳
履	馬皮鞋

타 있는데 이는 冬服으로서 平民女服을 中心으로 한 것으로 純然히 國俗女服으로 보이며 平常服이다¹⁰⁾ 이때의 袴는 白色綿布로 만든 것을 입었던 것이다.

또한 19代 肅宗代의 仁顯王后 嘉禮都監儀軌(肅宗7年. 奎章閣圖書)에 나타난 中殿衣帶中에 “單裏衣”, 「國婚定例」世子嘉禮에 있어서 世子宮 嬪宮衣衛에 “紫的 吐袖 袂裏衣”, 大君嘉禮에는 “衫兒二次單裏衣”등이 있고 宮中件記에 나타난 李朝末葉의 袴를 보면 다음과 같다.

—王大妃의 少禮服—

너른 봉더(白)

—王妃의 平服—

삼팔 단니의(단속곳)

삼팔 봉더(바지)

—王妃服—

단속것 白(삼팔)

바지 白(삼팔)

—嬪宮衣衛—

白 苧布 겹단속곳

白 水禾紬 던봉무족이

- 白 苧布 무족이
 白 倭紬 민바지
- 아기(公主・翁主)옷 十才未滿—
 단속곳 白
 바지 白징(裁陽)
 足巾(버선) 白
- 王子郡 夫人禮服—
 바지(누비바지, 겹바지, 단바지) 白
 단속옷(겹) 白
- 君夫人服(甲午 四月 八日 春節君夫人의복 받기)—
 화방듀징 너른바지 }
 화방듀징 바지 } 준누비 一作
 명듀징 겹 단속것
 명듀 단속것
 더포 단속것
 더항나 단속것
 鼎紬 바지 준누비
 鼎紬 바지 오목누비
 은나 겹바지
 명듀징
 옥양복
 금양사
 옥양복 單바지
 細布 裡衣
- 內人服色—
 바지 보라 노방쥬
 단속곳 白
- 尙宮옷—
 白 삼팔 단바지
 삼팔 누비바지
 白 別紋판사 단속것
 白 은나단 단속것¹⁾

이들을 토대로 하여 볼때 李朝初에는 女子들의 袴種類를 裏衣(袂裏衣·單裏衣)라 한 것 같고 李朝末에 오면 바지(민바지, 단바지, 누비바지, 겹바지), 단속곳(겹단속곳)등의 명칭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使用된 衣次와 色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絹, 布, 綿으로 大別할 수 있다.

◎ 衣次

① 紬

紬는 보통 「明紬」 「綿紬」로 불리우는데 그 種類가 상당히 많다.

이 紬類中 우리나라 土產品으로 옛날부터 이름이 높은 것은 吐紬와 水紬인 것 같다. 「吐紬」란 土產의 蠶을 딴 것이고 「水紬」란 手紬를 말함이니 機械紬에 對하여 一名 「손주」라고도 한다. 이 明紬가 苧布와 더불어 品質이 優秀하여 우리나라 特產物로서 外國使臣에 贈物한 記錄이 많이 있다.

또한 紬類中 가장 高級紬는 三八紬와 詳紬인듯하다. 水禾紬는 一名 三八紬라고도 말하며 高宗誕日에 이것으로 봉지(바지)와 細누비 하트 등의덕(숨을 얇게 두어서 누빈 저고리) 內作등을 지었고 그밖에 王妃의 單裡衣(단속것), 尙宮들 저고리次 등도 이것으로 했음을 볼 수 있다. 그밖에도 國末 宮中에서 바지감으로 많이 쓰인 것은 鼎紬, 花紡紬등이 있다. 그러나 宮中에서는 무늬가 없는 明紬나 花紡紬는 忌諱하여 옷옷으로 하지는 않았다. 國婚定例에도 王妃나 世子嬪宮衣櫛에 「吐紬」가 많이 나오는데 이는 단속곳, 바지, 옷안감등으로 쓰인 것이 지 겹저고리나 치마는 보통 內人들도 안입는 것이 規則이었다. 옷옷으로는 縠이나 紗, 羅 등 무늬가 있는 것만이 使用되었다. 그 중에서도 花紡紬는 천이 얇고 제일 싸고, 수수한 無紋의 천인 까닭에 鼎紬와 水禾紬와 함께 國忌날 服飾으로 쓰였다.

② 羅

羅는 高句麗때부터 쓰였고 新羅에서는 貴人男女衣服에 많이 使用되어 禁制까지 내린 것으로 엮은 비단을 얘기한다¹²⁾.

李朝에 와서 가장 普遍的으로 需要된 것은 亢羅이며 이것은 다시 熟항라, 苧항라, 生항라等으로 區別되는데 그중 苧항라는 모시 울이 섞여서 뽕뽕하기 때문에 속적삼으로 많이 使用했고 단속곳으로도 쓰인 것이 나타난다. 그밖에 봄철 속바지用으로 銀羅가 쓰였고 추라라는 것도 있는데 丁巳年 9月 27日 王妃衣櫛¹³⁾에 소고의(저고리)와 치마감을 위시하여 德惠翁主 6才때 正月 설빔의 치마와 단속곳에도 이 천이 使用되었다.

白	추라	단속것	1
白	倭紬	단속것	1
白	三八	단속것	1
白	三八	바지	1
白	玉洋木	바지	2

③ 紗

「紗」란 「깁」이란 뜻이니 羅의 一種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섬유가 곱고 얇은 것으로 羅 다음에 입는 옷감이고 紗를 벗게 되면 盛夏用으로 絹를 입는다.

紗中에서 代表的인 것은 甲紗로써 妃嬪들의 「너물봉디」라하여 단속곳에 利用되었을 뿐 아니라 王의 冕服서부터 男女들의 朝服, 妃嬪들 膝欄치마, 王子아이들의 동다리등 넓은 範圍에 쓰이는 것이다.

甲紗外에 紋紗라는 것이 있는데 女人들의 단속곳으로 쓰였다(宜惠堂上夫人衣次와 못 무조기치마), 또 廣紗(民間에서 말하는 생수)를 모시 속적삼외는 麻부치(麻類)를 絶對로 겹에 안 입는 宮中에서 伏中에 絶對的으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관사, 속수, 은조사, 생고사, 속고사 등이 있는데 이중 “別紋관사 단속곳”의 件記에 보인다.

西洋紗는 中國혹은 日本을 通하여 西歐의 것이 들어온 것으로 韓末 王이나 王妃의 겨울用 汗衫(속직삼), 또는 속옷등으로 많이 쓰였는데 요즘의 메리야스보다 感觸이 부드러웠다고 한다.

④ 絹

絹란 지금의 나이론같이 아주 얇어 잠자리 날개같이 纖細하고 고운 비단이다. 풀기가 세어 뽀뽀했기 때문에 盛夏用옷감으로 쓰였고 冠服類, 舊軍服같은 것은 거의 이것으로 했다. 이絹에도 種類가 많으나 금생초라는 것이 三棟擇後 嬪宮候補의 집단속곳으로 쓰인 件記가 있다.

⑤ 布

布는 麻布와 苧布의 두가지를 뜻하는데 일찌기 新羅때부터 자랑스런 우리 輸出品의 하나였다. 「베」는 喪服으로 使用해 내려왔으므로 宮中에서는 絶對 이를 꺼려한다. 모시도 布의 一種이라하여 속적삼, 속고쟁이등으로 쓰였으나 옷옷으로는 입지 않았다. 그중 安東布는 男子用 고의바지등에 쓰였다. 英親王과 義親王 冠禮때 고의로도 쓰였는데 이는 지금도 있는 것으로 노르스름한 베類의 천이다.

⑥ 綿

綿類中에서 高級으로 꼽은 것은 國末外來品인데, 「공양사」라는 것은 오늘날 「木아사」나 「木불란서」나 하는 천과 같아서 비단같이 相當히 고운 것이었다. 宮中 件記에 보면 貴人들의 단속곳으로 많이 使用되었고 또 三棟擇에 뽑힌 處女에게 내린 衣次속에 치마감으로 이 것이 나오니 아마도 속옷감으로 高級천이었던 것 같다.

國產무명은 上下貴賤을 莫論하고 비선, 또는 內衣用으로 많이 쓰였고 玉洋木은 더욱 가까운 近來의 것으로 고이, 행진, 또는 적삼, 겹바지에 나온 程度이고 그 밖에는 단속곳도 이것으로 해 입기를 貴人들은 꺼려했던 것 같다.

⑦ 色

宮中에서 꺼려하는 色의 하나가 白色인데 이는 五方思想에서 나왔다는 說도 있고 또는 素服이나 忌諱하는 까닭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男女 區別없이 속옷으로는 흰색을 입었고

韓末 高宗과 純宗은 흰 바지를 입으셨다 한다. 「辛亥七日 상감마마 육순(六旬) 천만세 탄일(誕日) 의덕(衣櫛) 불기」에 依하면 玉色동의매에 흰 봉지(바지)가 잔누비 깃바지까지 10벌, 三八細 솜바지가 5벌이었다. 또한 百日된 王子아기 옷에도 흰바지가 나온다. 그러나 男子의 주된 바지색은 老少를 莫論하고 보라색이었고 간혹 女子의 바지에도 보라색이 쓰였다. 그리고 八賤의 하나로 賤待했던 僧侶服으로 使用했기 때문에 宮中에서 稀貴했던 灰色이 國末에 가면 件記에 나타난다.

卽 純宗은 尹妃 生辰날 衣櫛에 灰色마고자와 바지를 입었다.

灰色 쾌듀 봉디(바지)¹⁴⁾.

다음에 李朝時代 庶人 男女의 袴에 對해서는 거의 資料가 無다시피하지만 우리 古有服飾의 基本構造를 庶民層이 이어 왔다는 點과 惠園의 風俗畫를 보전대 高句麗 時代 袴의 基本形態를 그대로 維持해 내려 왔다고 하겠다.

惠園은 英祖 正祖때 人物風俗畫家로서 그 當時 庶人들의 生活面을 많이 그렸는데 그의 그림에 依하면 女子들의 매무새가 特異하여 폭넓은 흰색 속옷을 버선목이 보이지 않게 발목까지 입고 걸치마를 저고리 도련위로 건어올려(거들치마) 허리띠를 매어 속에 입은 바지가 다보이도록 입은 것을 알 수 있다. (圖 9, 10)¹⁵⁾



〈圖 9〉 惠園의 風俗圖



〈圖 10〉 惠園의 風俗圖

李朝時代 女子들 全體가 똑같이 입은 것은 저고리나 저삼, 아래의 바지뿐일 것으로 바지 속곳, 혹은 단속곳정도까지는 貴賤없이 다같이 입었다. 庶民男子의 옷으로는 저고리, 바지 바람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圖10) 兩班들은 袍 밑에 基本服飾으로서 袴를 着用하고 있다. (圖 9)

한편 女子들의 바지밧이 터진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確實하지 않으나 金東旭 教授의 上古時代로부터 男女의 바지가 밧이 터져 있었다는 見解(韓國文化史大系 p. 97)와 연산군時代에 宮中侍女들에게 처음 實行시켰고 단속곳을 마련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全盤적으로 다

트게 되었다는 見解가 있는 바 元來 女子들이 바지를 곁에 입은 것으로 보아서는 일산군에 부터 트인 見解가 더 妥當한 것 같다.

또한 男子의 바지도 特殊한 경우에 앞을 트는 事例가 있기는 한 모양인데 高宗皇帝의 봉지(바지)는 소피보기 좋게 앞을 터 놓았다고 三祝堂 金氏가 證言하였다 한다¹⁶⁾ 이는 西歐의 文明이 들어온 때로 보아 女子의 袴와는 性質이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보아 바지아래가 터진 것은 便利를 圖謀하기 위한 方策으로 特히 속옷으로 변한 女子의 바지에 널리 퍼진 것 같다.

第 4 章 開花期以後의 袴

千年가까이 中國의 文化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우리나라가 西歐의 文物을 받아들여 1894年 甲午更張으로 政治・經濟・社會體制의 一大改革이 일어나¹⁷⁾ 服制뿐만 아니라 女性의 社會的 地位에도 變化가 일어나게 되었다. 一般婦女子들 外의 新女性들은 길이가 짧은 통치마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斷髮令이 내리고 王이 率先 머리를 깎고 洋服을 입어 우리의 服飾構造는 西歐洋服과 우리 基本服飾과의 二重組織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日帝末에는 우리옷이 活動服이 못된다하여 “몸빼”라는 바지 形態의 옷을 婦女들에게 強要하여 지금도 勞動하는 女人에게 입혀지는 傾向이 있지만 便易에 依해서 입을 뿐 그런 形態가 우리 옷에 影響을 미친 바는 없고 亦是 高句麗時代의 構造가 그대로 維持되었다고 하겠다.

當時의 男女의 바지에 對하여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男子의 袴

① 內袴衣(속바지): 袴아래에 입는 것으로 보통 木綿類나 麻苧등으로 만든다. 形態는 袴와 비슷하다.

② 袴: 內袴衣의 위에 입는 것으로 감은 絹, 木綿, 毛織을 쓰고 最近에는 山東紬, 羅紗등 넓은 것을 많이 使用하였으며 色은 白・黑・灰・茶等이 쓰이고 치수는 大人이 다음과 같다(李朝末)¹⁸⁾.

길 이	100cm	부 리	22.5cm
바지통	45cm	허 리 폭	17.5cm
밑 위	47.5cm	허리둘레	105cm

이것과 現行의 바지는 치수에 別 差異가 없이 李朝末과 現行의 바지는 같다고 할 수 있다. 參考로 바지의 形態와 名稱은 그림과 같다. (圖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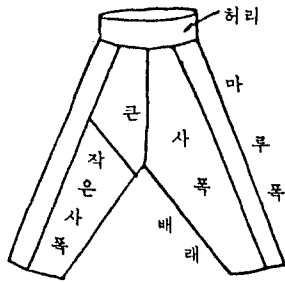
〈圖 11〉 男子의 平常服

2. 女子의 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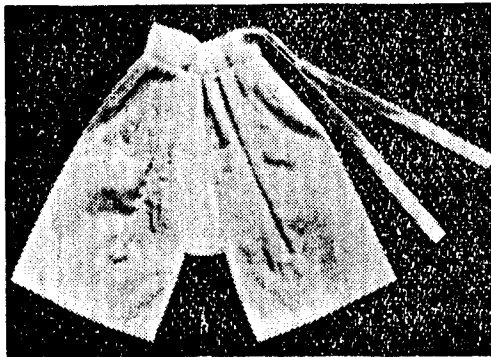
완전히 속옷으로 변한 女子의 袴의 種類를 들어보면 속속곳(속곳), 바지(고쟁이, 겹바지, 솜바지, 누비바지), 단속곳 등을 들을 수 있는데 입는 順序는 다음과 같다.

① 제일 속에 다리속곳을 입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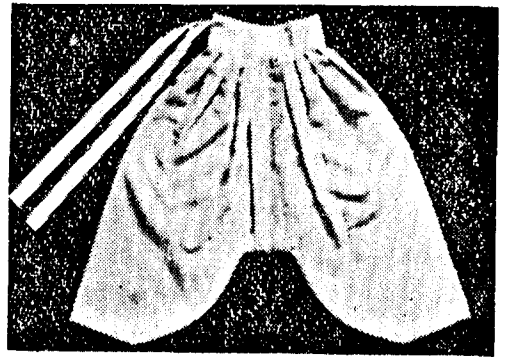
② 속속곳(內襯衣)를 입는다. (圖13) 春秋에는 玉洋木, 소창, 얇은 무명, 인조, 명주, 겨울에는 玉洋木, 무명, 광목, 서양목, 용, 명주, 여름에는 모시, 배광당포, 문포, 인조견등을 使用하였다.



〈圖 12〉 男子의 바지



〈圖 13〉 속속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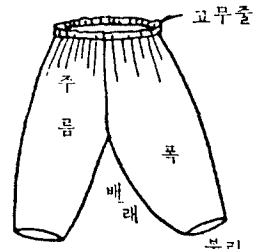


〈圖 14〉 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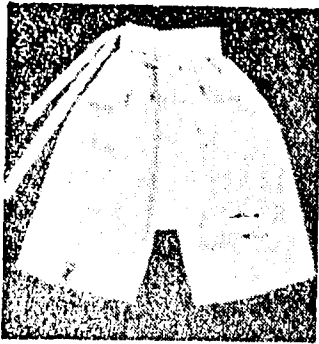
③ 속속곳위에 바지를 입는다. (圖14) 바지는 고쟁이(홀바지), 겹바지, 누비바지, 솜바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形態는 발목 부리쪽으로 좁아지면서 저고리 배래선과 같은 바지의 배래선이 特徵이다. 春秋用 잡은 자미사, 숙고사, 명주, 인조견직, 삼팔, 누우똥, 포플린, 玉洋木, 인조교직, 나일론등이 있고 여름用으로는 모시, 생모시, 감사, 생노방, 삼팔, 나일론등이 있고 여름用으로는 모시, 생모시, 감사, 생노방, 삼팔나일론등이 있으며 겨울用으로는 명주, 누우똥, 용, 자미사, 호박단, 포플린, 인견교직, 나일론등이 쓰였다.

이중 고쟁이는 여름철을 위하여 홉겹으로 되었으며 고운 배를 使用하여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솔기는 땀솔로 하여 시집이 깨끗하고 세탁에 견고하다. 누비바지는 보드러운 길감과 안감을 使用하여 고운 숨을 두고 윗 部分은 0.4cm 간격의 넓은 누비를하고 아래 部分은 0.2cm 간격의 가는 누비를 하여 숨을 고정시켜 통으로 빨아 간단히 손보아 입었다.

바지는 앞과 뒤의 밑이 터진 것이 보통이나 앞은 트지 않고 뒤만 터서 밑을 여민 改良바지가 나오고 現在는 테도론, 인조견 등으로 겹바지를 만들어 여름이나 春秋에 입는 것과 다후다와 같은 合成織物에 숨을 넣어 꽃모양이나 幾何學的인 무늬로 큼직하게 누비 세탁에 편하게한 겨울바지가 있는데 밑을 따로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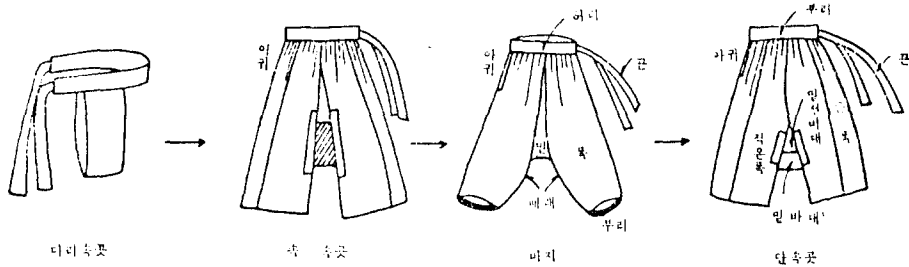
〈圖 15〉 개량바지



〈圖 16〉 단속곳

얇고 허리에 고무줄을 넣어 便利하게 改良한 것이다. (圖15)

④ 단속곳(單襪衣·單小袴)을 입는다. (圖16) 단속곳은 지금의 속치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속속곳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치마아래입는데 치마의 형을 整理해주는 구실을 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흰색감을 주로 썼는데 여름에는 모시, 생모시, 향라, 생삼팔, 생노방, 생고사, 인견, 오간터등을 썼고 春秋에는 속고사, 자비사, 향라, 관사, 명주, 삼팔, 포플린, 옥양목, 인견, 나일론, 겨울에는 명주, 뉴우똥, 삼팔, 자비사, 인견, 고단, 무명, 포플린, 옥양목등을 썼다¹⁹⁾.



〈圖 17〉 개화기 여성의 하의 속옷 구조(袴)

李朝時代に 새하얀 속옷을 겹겹이 포개 입고 길고 폭넓은 치마를 입었던 重厚하던 실루엣이 1930年代부터 좁은 실루엣으로 되었으며 따라서 속곳 種類의 수도 줄어 現在에 이르러서는 단속곳과 속곳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속바지만을 通用하게 되었다.

Ⅲ. 結 論

우리 古有의 服飾은 胡服系統으로 窄袖 肢體形의 上下가 分離된 바지 저고리가 基本的인 構造이므로 實用的이고 武風的인 衣服이었다. 卽 바지의 古有形은 오늘날의 洋服바지와 같이 통과 가랑이가 좁아 活動的이며 허리와 부리에 끈을 달아 손쉽게 매도록 된 것 같은데 차츰 中國의 影響으로 上流層의 바지는 통이 넓은 形態로 變遷하게 되었다.

李朝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一般化되었으며 主로 上流層에서는 中國式 袍類밑에 받히입었고 勞動하는 庶民들이나 賤民들은 바지, 저고리 바람에 맨상투로 일했다고 보는데 古有形의 바지인 흉태바지, 감방이등이 이들에 依해 계승되어 내려왔음은 勿論이다.

高句麗壁畫를 보면 上古時代에는 男女가 共通으로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위에 치마를 입기 始作하면서부터 이러한 習俗이 차츰 없어져 女子의 바지가 完全히 속곳의 形態를 갖추었다고 본다. 이것은 李朝初期에는 褰衣라 한듯 싶고 차츰 단속곳(短小袴), 봉디(바지)등의 名稱이 나오는 바 이들을 大別해 보면 속속곳, 바지, 단속곳등이 있어 最近世까지도 함

게 겨 입었던 것이다.

이렇게 속옷을 많이 겨 입은 것은 防蹠의 目的보다는 치마를 퍼지게 하는 目的이 더 컸던 것 같다. 卽 西歐文物이 들어오기 始作한 開花期 後로 女子들의 地位가 向上되고 活動的으로 됨에 따라 치마 形態가 조분해지자 차츰 속옷도 簡素化되어 가지수가 줄어들었고 요즈음에 와서는 內衣가 發達되어 연산군때부터 터졌다고 생각되는 바지밑을 막고 고무줄을 넣은 改良바지만 입게 되었다.

우리 韓服이 洋服에 밀리고 等閑視되어 老年層에서만 입어오던 것이 차츰 우리 古有文化와 自主性을 保存해 나가자는 움직임과 함께 民俗衣裳으로서의 古有服飾美를 찾게 되고 禮服으로서 重要的인 位置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韓國服飾의 基本的인 形態라고 할 수 있는 바지와 속옷種類를 研究考察하여 過去를 알므로써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自主性있는 새로운 衣生活을 創造하는데 약간이나마 본 小考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단지 바지에 관한 實物이 없어 文獻을 中心으로 다루어 보는데 그쳤으므로 앞으로 좀 더 많은 研究努力이 必要할 줄로 안다.

〔註〕

- 1) 李如星 朝鮮服飾考(白楊堂, 1947) p. 129
- 2) 朴京子 “古墳壁畫에서 본 高句麗 服飾小考” 家政學 論文集(誠信女大)(民家書館, 1968) p. 238.
- 3) 金富式 三國史記 卷33第 雜誌第2 色服條
- 4) 金東旭 “興德王 服飾 禁制의 研究” 東洋學第 1 輯(東洋學 研究所 1971) p. 36.
- 5) 徐競(李相玉 注解), 宣和奉使高麗圖經(教文社, 1970) pp. 58-89.
- 6) 李奎報, 東國李相國集第十五卷. (朝鮮古書刊行會, 大正2年), p. 1
- 7) 金東旭 “高麗圖經의 服飾史의 研究”, 延世論叢第 7 輯, (延世大學校大學院, 1970) p. 88
- 8) 金東旭, op. cit., p.98
- 9) 成宗實錄 卷一 十二年十二月十九面
- 10) 金東旭, op. cit., p. 107
- 11) 金東旭 “李朝中後期の 女服構造” 亞細亞 女性研究(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 女性問題研究所, 1964) p. 85.
- 12) 李如星, op. cit., p. 297.
- 13) 1917年 尹妃 生辰(陰 8月 20日)
- 14) 金用淑 “李朝後期 妃嬪들의 四節服 및 衣次” 亞細亞女性研究第 5 輯(淑明女子大學校, 1966), pp. 169-184.
- 15) 朴京子 “忠園風俗譜에서 본 우리옷의 멋” 誠信女子師範大學 研究論文集(誠信人文科學研究所, 1970) pp. 104-116.
- 16) 金東旭 “興德王 服飾禁制의 研究”, 東洋學第 1 輯(東洋學研究所, 1971) p. 36
- 17) 韓祐勛, 韓國通史(乙酉文化社, 1971) pp. 473-478
- 18) 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의 服裝(朝鮮總督府, 昭和2年) pp. 4-5
- 19) 權桂淳, 우리옷 變遷과 裁縫(修學社, 1973) pp. 123-130.
- 20) 李在華, 世界圖繪百科事典(百科社, 1973) p. 141

參 考 文 獻

- 金富軾：三國史記，朝鮮史學會，1940.
- 李相玉：宣和奉使高麗圖經注解，敎文社 1970.
- 李如星：朝鮮服飾考，白楊堂，1947.
- 金用淑：“李朝後期妃嬪들의 四節服飾 및 衣次”，亞細亞女性研究 5 輯，淑明女子大學校，1966.
- 朴京子：“蕙園風俗畫에서 본 우리옷의 멋” 誠信女子師範大學研究論文集 誠信人文科學研究所，1970.
- 韓祐勳：韓國通史，乙酉文化社，1971.
- 朝鮮總督府：朝鮮の服裝，朝鮮總督府中樞院，昭和2年.
- 權桂淳：우리옷 變遷斗 裁縫，修學社，1973.
- 李在華：世界圖繪百科事典，百科社，1973.
- 李奎報：東國李相國集，朝鮮古書刊行會，1973.
- 石宙善：韓國服飾史，寶晉齋，1971.
- 朝鮮總督府：高麗以前の風俗關係資料攝要，朝鮮總督府中樞院，1941.
- 金東旭：“韓國服飾史” 韓國文化史大系IV. 高大民族文化研究所，1971.
- “ ”：“興德王 服飾禁制의 研究”，東洋學第 1 輯，東洋學研究所，1971.
- “ ”：“高麗圖經의 服飾史的 研究”，延世論叢 第 7 輯，延世大學校大學院，1970.
- “ ”：“李朝中，後期의 女服構造” 亞細亞女性研究，淑明女子大學校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1964.

A Historical Study on Korean Trousers

The basic pattern of old Korean trousers was found to be active, being narrow in body and leg, and tied at waist and ankle. They developed into wide ones in noble class influenced by Chinese long wide sleeved “Hwalsui. This kind of style was generalised in the Yi Dynasty, but the poor still put on “Holdaebagi” and “Jambangi” which have been handed down to us now.

Both sexes originally wore trousers and this custom continued to later Silla Dynasty, which we find it in King Hungdog’s ban, prohibition of clothing, being come down women in Pyongyang area now. After women wore long full skirt on the trousers, however, we read that trousers have become a sort of undergarment which appeared finally short in length just like that of modern one, such as “bagi”, “soksokog” and “Gojangi”.

They wore many underwears rather for beauty-purpose than for a protection against coldness. We can hardly find the undergarments such as “Dansokog” being sense of beauty different and various kinds of underwears developed today.